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소상공인 대상
공무원 사칭 사기 경고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 공문을 보내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 자치단체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 지자체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건에서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사기 수법은 주로 공무원을 가장해 소상공인이나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구입을 빌미로 견적서를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 명의의 허위 공문을 작성해 납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해당 공문에는 실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양식을 모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외관상 진짜 문서처럼 보이는 점이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사기범은 아예 특정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청, 물품을 먼저 보내게 만드는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공무원 사칭 허위
구매 사기 경찰 신고 당부

부안군은 전국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허위공문서를 전송해 특정업체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안읍 한 조병업체와 농기계업체 등에 부안군 소속 A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확인서라는 허위공문서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됐으며 이후 특정업체를 소개하면서 물품 구매 및 납품을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일반 업체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제품의 납품을 유도하면서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행히 해당 업체들은 부안군청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부관아 터 되찾고 통합학교 세운다

정읍시·전북교육청,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고부관아 복원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관아 복원과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한 협력의 닻을 올렸다.

시와 도 교육청은 18일 고부면 동학올림픽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부관아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역의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부관아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이 열린 역사적 현장이다. 그러나 현재 이 관아 터는 고부초등학교 부지와 겹쳐 있어 복원을 위해서는 학교 이전이 불가피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고부초를 고부중 부지로 이전하고 초·중학교 통합운영학교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역사문화지원의 보존과 활용,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이루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통합운영학교는 농촌 지역의 학생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고, 지역의 역사자원을 복원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생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정읍교육과 전북교육의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숙 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정읍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방과후 학교 운동장 활용 파크골프장으로 사용”

이경신 고창군의원, 5분 발언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활용방안 제안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은 18일 제316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활용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이경신 의원은 방과후에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아산면 대야초등학교에서는 이

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방과 후에 약 50여명의 주민들이 매일 운동장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며 자연스런 관계 주민들 간의 유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아직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지 않은 일부 면 지역에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한다면, 노년층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파크골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경신 의원은 폐교를 주민들

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생으로 하력인구 급감으로 점차 학교가 소규모화되고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도서관, 자연학습장, 지역민 소득 증대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동체의 중심이자 지역문화의 핵심 공간인 학교 공간과 폐교의 재활용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박차... 미생물 산업에 AI·로봇 기술 접목

정읍시가 미생물 소재 산업의 전 주기 생산체계를 완성하며, 첨단 기술 기반의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미생물 소재 개발과 생산에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설계부터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자동화하고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미생물 산업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

화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총사업비 99억원(국비 49억 5000만원, 지방비 49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미생물 소재 제품 생산 시 필요한 설계, 제작, 시험, 학습 등 전 과정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 과정에서 도입되는 첨단 장비는 맞춤형 미생물 개발 및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해, 국내는 물론 국제 시장에도 정읍산 미생물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는 올해 5월부터 관련 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스템 통합 제어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 뒤 연내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 입에 쏙 고구마’ 전국서 인기

고창군, 고창 고구마로 만든 말랭이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큰 호응

고창군 대표 특산물 고구마로 만든 말랭이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고창군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한 입에 쏙 고구마(사진)’이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면서 전국 소비자들에게 고창 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 입에 쏙 고구마’는 고창군 신항력산업단지에서 위치한 해물냉면농조합법인에서 고창 고구마 100%를 사용해 생산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80g 한 팩 기준 230kcal의 간편 영양식으로, 별도의 첨가물 없이 고구마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린 건강 간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는 지역사회 상생과 자원 순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대산면 소재 고구마 재배 농가에서 커피박 퇴비 1만포(포당 20kg)를 무상 기부하기도 했다.

커피박 퇴비 전달식에는 김용진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해물냉면농조합법인, 스타벅스 김지영 BSC팀장이 참석했다. 커피박 퇴비 전달과 함께 상생 협력의 의미를 담은 파켓 전달과 기념촬영이 이뤄졌다.

다.

커피박 퇴비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발생한 커피박을 재활용한 친환경 자원이다. 고창 고구마 농가에 무상 제공해 환경 보호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협력은 커피박을 농업에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와 농업 생태계를 실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스타벅스 제품 진출은 고창 고구마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양파수확 일손돕기 ‘총력’

심덕섭 고창군수가 18일 오후 성내면 신성리의 양파 농가를 찾아 양파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덕섭 군수와 고현규 성내면장을 비롯한 직원20여명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양파를 캐고 뿌리와 잎을 다듬는 작업까지 정성껏 이어갔다.

양파 농가는 “이번 주말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수확을 서둘러야 했는데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며 “혼자서는 업무도 못 냈던 작업을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심덕섭 군수는 농업인의 손을 잡으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수확기를 맞은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수확철 농촌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보건소-부안군의사회, 청렴캠페인 실시

부안군보건소(소장 박찬병)는 지난 17일 부안군의사회와 함께 청렴협력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소와 의사회가 협력하여 공직자와 의료계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투명하고 깨끗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렴협력체를 통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에서는 병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청렴한 부안군 5無 운동’ 등의

청렴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통해 청렴 메시지를 전하며 청렴 홍보물을 배부해 생활 속 청렴 실천을 적극 홍보했다.

박찬병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보건소와 의사회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함께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과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